

세계는 지금, 18억의 직업이 부족하다. (Global Shortfall: 1.8 Billion Jobs)

Global Shortfall: 1.8 Billion Jobs

세계는 지금, 18억의 직업이 부족하다.

2011. 9. 13. 매츠 투네핵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좋은 정규 직종 18억 개가 부족하다.” 갤럽의 CEO 짐 클립톤(Jim Clifton)이 분석한 내용이다.[1] 전 세계 인구의 1/4이 실직 혹은 불안전 고용 상태라는 말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다. 생계형 산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업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정규직을 희망하지만, 쉽게 찾아질 것 같지는 않다. 고용 불안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랍권에서만 2020년까지 적어도 5,00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실업률을 보면 이집트 24%, 요르단 27%, 튀니지 30%, 사우디아라비아 39%, 가자 46% 등이다 (2011년 9. 10일자 이코노미스트지).

소위 잘 사는 나라들에서도 4,400만 명이 실업 상태이며, 1,100만 명은 불안전 취업 상태다. 실직률이 높아지면 우울증, 이혼, 약물 남용 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한 인적 자원 관련 비용 또한 엄청나다.

부유한 나라나 빈곤한 나라 할 것 없이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나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보면, 25세 이하의 청년 중 46%가 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남 아프리카는 50%가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도전이다. 어떻게 맞서야 할까?

자료(Handout)가 존엄성을 주는 게 아니다. 직업이 인간에게 존엄성을 준다.[2]

지원(Aid)을 하면 일시적으로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18억 개의 직업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소액 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s)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공식적인 경제 체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고정되면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빈곤에 빠져 버릴 위험이 크다.

짐 클립톤은 이렇게 말한다. “지도자의 요건이 변하고 있다. 최고위층 지도자가 되려면 새로운 임무, 즉 직업 창출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인 BAM 운동에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아무 직업이나 많이 만들면 된다는 게 아니다. 마피아도 직업을 창출한다. 인신매매단도 성 매매 산업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직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증진해 주는 직업이다. 모든 사람과 사회에 선하고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직업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혁신가(innovators), 기업가(entrepreneurs), 그리고 멘토가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 (2011. 9. 10일자)에 실린 한 연구를 보면, “1980~20005년 사이 미국에서 기업이 창출한 순수 민간 분야 직업은 5년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M 선언서 (Business as Mission Manifesto)[3]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에게 촉구한다.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업가로서의 은사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소명을 부여해서 보내야 한다. 이들이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업가들에게 촉구한다. 기업가들은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확인하고, 어떻게 자신의 은사와 경험이 BAM(Business as Mission)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데 쓰임 받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Mats Tunehag

Sweden

www.MatsTunehag.com

[1] Jim Clifton, The Coming Jobs War , Gallup Press, October 2011에서 발췌.

[2] 존 폴 II (John Paul II)이 일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쓴 탁월한 회람.
<http://tln.kr/65q31> 를 보라.

[3] BAM 선언서(Business as Mission Manifesto)의 전문은: [Further Reading](#).